

신자유주의의 정체와 불교도의 역할

김성철
동국대학교

I. 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출현과 그 질곡의 역사

1. 신자유주의 이념의 원천—아담스미스와 자유방임주의
2. 자유방임주의와, 악성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의 탄생
3.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 진영의 추이와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4. 공산권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체

II.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불교적 분석

1. 짐승을 닮은 ‘상업인’의 심성과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폐해
2. 동물적 약육강식의 세계와 반(反)동물적 제(戒)·율(律)의 정신

III. 진정한 ‘역사의 종언’을 위한 불교적 모색

1. 신자유주의의 그늘을 밝히는 새로운 등불—NGO와 인터넷
2. 중도불성(中道佛性)의 감성과 천수천안(千手千眼)의 실천
3. 금력과 권력이 ‘골방의 족보’처럼 취급되는 사회를 위하여

요약문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번영을 약속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운용방식이라고 칭송되면서 세계 각국에 보급, 또는 강요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기업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 이론의 산실은 시카고학파이지만 그 이념의 기원은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적 경제이론에 있다.

아담스미스 이후 마르크스를 거치면서 전개된 세계 정치경제사의 질곡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의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데 자유방임적 경제운용 이후 빈익빈부익부에 대한 반발로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일반대중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결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공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인간관’과 “나의 재화가 늘어나야 한다.”는 ‘탐욕의 가치관’에 투철할 때 상업 활동에서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이는 ‘상인 이데아(Idea)’의 심성인데, 과거에 세계 그

어디서든 상업인이 천시되었던 이유는 상업인의 이런 이기적 심성이 짐승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와 율의 정신에서 보듯이 불교적 가치체계와 인간관은 상업인의 그것과 상반된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은 견불성(見佛性)의 준말인데, 삼론학에 의거할 때 불성은 중도이며 중도는 ‘탈이분법(脫二分法)’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견성을 추구하는 불자라면 사회적 이분법인 ‘빈부의 차별’이 극심해 질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내, 국가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교인들이 사회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련을 주축으로 삼았던 중앙집권적 좌파가 사라진 지금, 지방분권적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NGO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정의감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생각된다. 또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은밀한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반(反)-동물적인’ 불교의 가르침이 NGO 및 인터넷과 결합할 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이념에 기반한 NGO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사회에서 절대빈곤이 사라지도록 돋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한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권력과 금력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때 금력과 권력이 ‘꼴방의 족보’처럼 취급되는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상업인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은 이념가들의 몫이다. 힘을 추구하는 우익과 이념을 지향하는 좌

익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마르크스, 중도, 불성, NGO, 자본주의, 공산주의

I . 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출현과 그 질곡의 역사

1. 신자유주의 이념의 원천 – 아담스미스와 자유방임주의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대처리즘(Thatcherism),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FTA(Free Trade Agreement) … 이 모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관련된 신조어 또는 약어(略語)들이다.

시카고학파는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1899~1992)와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의 산실이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에 집권했던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25~)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며, 워싱턴 합의는 1990년 제정된 신자유주

의적 경제 운용의 원칙이며, IMF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을 조건으로 금융 수요국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의 한 기금이며, FTA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삼는 국가 간 경제운용 협약이다. 이들 신조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얹혀 있는지 조망하기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론의 연원으로 올라가 얘기를 풀어보자.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인권’을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기업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며, 그 기원은 멀리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에 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 이후 남북아메리카대륙에 대한 잔혹한 침탈¹⁾을 통해 막대한 양의 재화가 유럽에 유입된다. 특히 은과니 금과와 같은 화폐대용물(Bullion)이 대량 유입되자 물가가 폭등한다. 이 시기에 일어난 유럽 사회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역사가들은 ‘상업혁명(Commercial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화폐대용물을 많이 비축할수록 부강한 국가라는 생각에서 유럽의 군주들은 수출을 독려하였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정책을 중상주의(Mercantilism)라고 부르며 18세기 후반까지 근 200년 이상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운용방식이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는 1776년 발간된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Law of demand and supply)’에 의해 시장이 운영될 경우 오히려 더 큰 국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하였다

1) Ward Churchill, *Indians Are We? Culture and Genocide in Native North America*, Monroe, ME: Common Courage Press, 1994, 29-39쪽 참조.

다. 국부를 늘이는 원동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시장의 요구’와 그런 요구에 부응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selfishness and greed)’이며,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라고도 불리는 아담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이론은 그 당시 태동 하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1760년~)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²⁾’적 경제운용의 이론적 베일 목 노릇을 하였다. 그 후 200여 년이 지난 오늘 미국의 주도 하에 전 세계에 유포되거나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이러한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그 모태로 삼는다.³⁾

2. 자유방임주의와, 악성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의 탄생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 이후 상업 활동의 전면에 나섰던

2) 프랑스어인데, 직역하면 ‘let do(그냥 하게 해!)’이며, ‘그냥 놔둬!(let alone, let pass)’라는 의미이다.

3) 이상의 내용은 데이비드 하비, 최병우 역, 『신자유주의』(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0); 인터넷 백과사전인 Wikipedia[www.wikipedia.org]의 Adam Smith, Liberalism, Neoliberalism, Chicago school, Thatcherism, Reaganomics, Washington Consensus, World Bank Group, IMF, FTA, Laissez-faire, Mercantilism 항목 등에 근거하여 필자 나름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은 유럽의 도시(Burg: 城)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고 마르크스(Marx: 1818~1883)에 의하면 이들의 기원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경작지에서 추방된 중세의 농노에 있다.⁴⁾ 문자 그대로 ‘도시(Burg) 거주민’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부르주아지(Bourgeoisie)라고 불렸다. 그런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이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부르주아지라는 호칭은 유산자(有產者)를 뜻하는 말로 탈바꿈하였다.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된 부르주아지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왕실을 구제하기도 했고 유능한 관리를 왕정 국가에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의 법적 구조는 왕을 정점으로 귀족이나 성직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력이나 능력이나 장래 성은 이미 부르주아지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⁵⁾ 그리고 이들 부르주아지, 즉 상업인들의 주도 하에 1789년 일어난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것이다. 현실적 힘의 서열과 전통적 신분질서 사이의 극심한 괴리로 인해 결국 앙시앵레짐(ancien régime: 구체제)이 와해되고 말았다. 얼마 후 나폴레옹제정의 출현 등 일시적으로 복고적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의 봉건주의적 잔재가 일소되면서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에 근거한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은 점차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다.

프랑스혁명정신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던 나폴레옹법전(Code Napoleon, 1804년 공포)에서 표방하는 세 가지 절대원칙이 있다. 첫째는 소유권절대의 원칙이고, 둘째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며, 셋째

4)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1948),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5) G. 르페르베, 민석홍 옮김, 『프랑스혁명』(서울: 을유문화사, 1995), 12쪽 참조.

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다.⁶⁾ 이 세 가지 원칙 모두는 앙시앵레짐을 봉괴시킨 주도세력인 그 당시의 상업인, 즉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 후 세계 각국에서 제정된 근대민법의 근간이 된다.⁷⁾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상업지상주의적 법체계’가 유럽 전역에 보급된 후 부르주아지, 즉 상업인들은 ‘경제자유주의적 법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송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방임적 경제 운용은 곧이어 시련에 부딪친다.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소아노동, 극심한 빈부차이 등 악성자본주의(Vicious Capitalism)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 이념이 대두하며 19세기의 서구사회는 격랑에 휩싸였던 것이다. 푸리에(Fourier: 1772~1837)⁸⁾나 생시몽(Saint-Simon: 1760~1825)⁹⁾ 등과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¹⁰⁾이 출현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시기도 바로 19세기 초엽이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구미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그들의 저술들이었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간했던 소책자 『공산당선언』이 발간, 보급되자 이념적 기반 위에 오른 구미의 사회주의 운동은 급물살을 탄다.

6) 조성종, 『법학개론』(서울: 학연사, 2006), 72쪽.

7) 조성민, 『민법총칙』(서울: 두성사, 2003[초판 1999]), 19-20쪽 및 위의 책.

8) 저서로 『인간의 사회적 운명과 4가지 운동의 논리』(1808), 『가정적·농업적 사단론(社團論)』(1822), 『신산업세계』(1829~30) 등이 있다.

9) 기독교적 사회주의자. 저서로 『어느 제네바인이 동시대인에게 보내는 편지』(1803), 『새로운 그리스도교』(1825) 등이 있다.

10)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는 엥겔스가 마르크시즘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이념에 붙였던 편칭(貶稱)이다.

3.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 진영의 추이와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대두

마르크스 이후 구미의 사회주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1917)에서 보듯이 마르크스의 본뜻과 무관한 급진적 공산주의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럽사회에서 오늘날까지 면면히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민주주의¹¹⁾로의 전이(轉移)였다.

사회주의라는 뜻밖의 견제자 혹은 적(敵)을 만난 자본주의 역시 변신을 시작하였다. 1869년에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인 ‘독일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이 창당되자, 독일제국의 건설자이며 당시의 총리였던 비スマ르크(Bismarck: 1815~1898)는 국가의 ‘온정적 기능’을 보여주면서 혁명적 사회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질병보호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연금법(1889)’ 등 사회보장법을 입법한다.¹²⁾ 그리고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재산권의 의무수반’이 명문으로 규정되었고,¹³⁾ 독일헌법의 이러한 사회보장적 요소는 그 후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입법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의 증권시장 붕괴와 함께 세계적 대공황이 발생하자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파국의 위기를 맞는다. 케인즈의 거

시경제이론에 근거한 ‘국가 개입’의 경제정책¹⁴⁾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전비지출의 효과로 세계경기는 다시 회복되었고 종전 이후 케인즈 식의 경제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1960년대 말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계속 발전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계급 타협이 주창되었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개입하였으며,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등에서 다양한 복지체계들이 구축되었다.¹⁵⁾ 이러한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고 부른다.¹⁶⁾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착근된 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¹⁷⁾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 이유를 경제정책 내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현대사의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연관시켜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면, 서구사회를 격랑 속에 몰아넣었던 1960년대의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된다. 1964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캠퍼스 점거를 시작으로 일어난 미국의 학생운동은 1966년 6월 서베를린 자유대학의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1969년까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대학으로 번진다.¹⁸⁾ ‘68혁명’, ‘히피(Hippie)’ ‘대항문화

1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

12) 브리태니커, 비スマ르크 항목.

13) 조성종, 앞의 책, 80쪽.

14) 경기침체에 대한 케인즈의 처방은 ‘이자율 하향조정’과 ‘기간 시설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두 가지이다. 이런 정책을 통해 통화의 양이 늘어남으로써 경기가 다시 활성화 된다고 보았다: Wikipedia, Keynesian economics 항목 참조.

15)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 27쪽

16) 위의 책.

17) 위의 책, 29쪽.

18) 크리스 하먼, 이수현 옮김, 『세계를 뒤흔든 1968』(서울: 책갈피, 2004), 62쪽 참조.

(Counterculture)', '뉴레프트(New Left)' 등의 신조어들에,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구미를 뒤흔들었던 학생, 시민운동의 성격이 집약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 말의 학생운동은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974년의 대규모 파업으로 당시의 히스 정부는 붕괴한다. 이런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영국은 결국 1975~1976년 동안의 IMF 금융지원으로 소생한다.¹⁹⁾ 그리고 1979년 5월 보수당 소속의 '철의 여인' 대처가 집권하면서 '노조권력파의 대립, 경쟁적 유연성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협의체에 대한 공격, 복지국가에 대한 집착의 해체 또는 되돌리기, 공기업의 민영화, 조세 감면, 기업 선도의 고취, 외국 투자의 막대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환경의 창출'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한다.²⁰⁾

미국의 경우, 1970년대를 전후한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했던 민주당의 카터의 재선을 막으며 1981년 1월 집권한 공화당의 레이건 역시, '조세를 감면하고, 예산을 축소하며, 노조와 전문가 권력에 대해 공격을 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강력히 옹호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시장 자유를 허용하며, 투자에 대한 조세를 폐지하고, 높은 수익을 찾아 금융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법인세를 대폭 감소하며, 최상위 개인에 대한 세율을 70%에서 28%로 감면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 실행한다.²¹⁾

1980년대를 집권하며 그 집권 말기, 혹은 퇴임 직후에 공산권의

붕괴를 목격했던 영국과 미국의 두 통치자, 대처와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각각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바, 이들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은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었다. 1980년대 이전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지주였던 케인즈적 통화주의(Monetarism)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들은 정부가 '자유시장(Free market)'에 통제를 가하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²²⁾ 멀리 아담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카고학파에 의해 재창출되고 대처와 레이건의 실험을 거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989년 제정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²³⁾

- ① 정부예산 삭감
- ② 경제 효율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
- ③ 세계 개혁
- ④ 이자율 자유화
- ⑤ 경쟁으로 결정되는 환율
- ⑥ 무역 자유화
- ⑦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 자유화
- ⑧ 국영산업의 민영화
- ⑨ 수출입 규제 철폐
- ⑩ 재산권 보호

요약하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영산업을 민영화 하며, 자본과 상품의 국가 간 이동에 장벽을 없앤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워싱턴합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민영화'

19)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 29쪽.

20) 위의 책, 40-41쪽.

21) 위의 책, 43-44쪽.

22) Wikipedia, Chicago school of economics 항목 참조.

23) <http://www.cid.harvard.edu/cidtrade/issues/washington.html> - 2008/07/22 채취.

와 관계된 것들이다. 워싱턴합의에서 권고하는 경제정책은 그대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건이 되어 금융 수요국에 강요되었으며, 1997년 환란 이후의 우리 한국 역시 그 수혜국(受惠國), 혹은 피해국(被害國)이 되었다.

4. 공산권의 봉고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체

만약 동서의 냉전이 계속되었다면 ‘워싱턴합의’의 경제정책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혹 확산되더라도 워싱턴합의 가운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 조항의 준수가 적극 강요되었을 것이다. 분배의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념적 우방’에 속한 빈곤국을 적대 진영에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 진영의 긍정적 측면은, 자본주의 진영으로 하여금 ‘자비로움’과 ‘정의로움’의 플랜카드를 계속 들고 있게 만드는 견제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열전(熱戰)의 말미에 냉전(冷戰)이 시작되면서 워싱턴에 세계은행²⁴⁾(World bank Group: 1945년 12월 설립)과 IMF(1944년 설립)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설립되는데, 당시 이런 기구들의 설립 목적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회원국들의 경제를 발

전시키고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⁵⁾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직접적인 전화(戰禍)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특수를 통해 종전 후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오르게 된 미국은 냉전시대에 자본주의 진영의 맏형 노릇을 자처하였다. ‘황금 같은 시기(Golden age)’라고 불리는 ‘착근된 자유주의’ 시대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달성했던 높은 경제성장률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맏형인 미국의 중여에 의존했으며,²⁶⁾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우리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역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²⁷⁾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997년 한국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더 이상 무조건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월스트리트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오래 동안 강요해 왔던 금융자유화정책을 한국에 강요하였다. 냉전시대의 WBG와 IMF의 기금들은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을 위한 구호자금으로 지출되기도 했지만, 냉전이 끝난 후에는 금융 수요국의 개방적 경제운용을 유도하는 당근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IMF로부터 55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은 금융서비스를 외국 소유에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운영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한국의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였고 국민 소득이 7% 하락하였으며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0% 하락하였고 실

24) ①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②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③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④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등 5개 금융기구의 복합체로 워싱턴에 본부를 둔다.

25) Wikipedia, World Bank Group 및 IMF 항목 참조.

26) 데이비드 하디, 앞의 책, 28쪽.

27) 위의 책, 135-141쪽.

업률은 9%에 가까이 상승하였다.²⁸⁾ 그러나 곧이어 한국은 산업적, 금융적 재구조화에 대한 IMF의 권고를 거절하였고 경제는 더욱 빠른 세로 회복하였다.²⁹⁾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금융적 파산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편협한 자기 이익을 키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어려운 방법을 통해 배웠으며,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월스트리트와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정의하게 되었다.”³⁰⁾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국민의 상위 1%가 갖는 국민소득의 높은 17%였는데, 전후에는 8%로 낮아졌다가 20세기 말이 되자 15%로 다시 높아졌으며, 상위 0.1%가 갖는 국민소득의 높은 1978년에 2%였던 것이 1999년에 6%로 늘어났다. 또 CEO 한 사람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수가 1970년에는 3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5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최부유국 1/5과 최빈국 1/5의 소득 격차가 1960년대에는 30:1이었는데, 1990년대에는 60:1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에는 74:1로 벌어졌다.³¹⁾

물론 이렇게 빈부차이가 커진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듯이 ‘전체 파이’의 크기가 많이 늘어난다면, 빈곤층이나 빈곤국의 경제여건은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통계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장하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 이상 위의 책, 139-140쪽에서 요약.

29) 위의 책, 124쪽.

30) 위의 책, 140쪽.

31) 위의 책, 34쪽.

최근 20년 동안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와이스브롯(Weisbrodt)과 그의 공동연구자들이 제공한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116개 국가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60년과 1980년 사이에 연 3.1%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1980년과 2000년 사이에는 연간 1.4%의 성장률을 보였을 뿐이다. 또한 116개 국가 중에서 단 15개 국가만이 - 88개 국가 중에서는 13개 국가만이 - 두 기간 사이에 연 0.1%포인트 이상의 성장을 증가를 보였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960-1980년 사이에는 연 2.8% 증가세를 보인 반면, 1980년과 1998년 사이에는 연 0.3% 감소를 보였다. ……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체제전환 경제들)의 성장을 기록은-신자유주의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더욱 비참하다.³²⁾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보급된 이후, 그 주창자들의 변명과 달리 파이의 크기가 늘어나는 속도는 오히려 둔화되었고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화는 ‘서구 금융계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경제정책’일 뿐이고,³³⁾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경제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일 뿐이었다.³⁴⁾

32) 장하준 저, 형성백 역, 『사다리 걸어차기』(서울: 부키, 2004), 233-234쪽 (송병건, 『세계화시대에 돌아보는 세계경제사』(서울: 도서출판해남, 2005), 193쪽에서 재인용).

33) Stiglitz, J.,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orton, New York, 2002, 129-130쪽 (위의 책, 125쪽에서 재인용).

34) 데이비드 하디, 앞의 책, 36쪽.

II.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불교적 분석

1. 짐승을 닮은 '상업인'의 심성과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폐해

앞에서 나폴레옹법전에서 표방하는 절대원칙 세 가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프랑스혁명의 주도세력이었던 부르주아지, 즉 '상업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3대 원칙이었다. 마르크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이러한 소위 '부르주아지적인 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개체들은, 그들의 힘이 국가라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일정한 관계에 제약받는 그들의 의사에 국가의사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부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사는 법률로서 나타나며, 법률의 표현 내용은 민법이나 형법에서 명백히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언제나 이러한 계급관계를 반영하고 있다.³⁵⁾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한 '상업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의사(意思)'가 '국가라는 보편적 기관의 의사'인 것처럼 포장되어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한 국가의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35) Karl Marx, "Die Deutsch Ideologie"(1945/1946): N. 브리스코른, 김일수 옮김, 『법철학』(서울: 서광사, 1996), 57쪽에서 재인용.

다. 프랑스혁명 이후 상업인들은 왕과 귀족을 물리치고 최고의 지위를 점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법률체계를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되게 개작하였다. '근대민법의 효시'라는 나폴레옹법전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상업정신'이었다.

그런데 인류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상업인'이 높은 지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근대적 조선시대까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순서로 매겨지는 신분질서를 당연시 하면서 상업인을 천대(賤待)했고,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유럽의 경우도 도시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토를 잃어버린 농노 출신이 대부분이었고³⁶⁾ 고리대금업이나 전당업과 같은 금융업 종사자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³⁷⁾ 인도의 경우 '브라만[종교인] → 크샤트리아[정치인] → 바이샤[상업인] → 수드라[노예]'로 이어지는 카스트제도에서 보듯이 바이샤라고 부르는 상업인은 네 가지 계급 가운데 노예 바로 위에 있는 하층계급이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층민으로 취급되던 상업인들이 프랑스혁명을 성공시키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폭발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신라의 장보고(張保皇: ?~846)나 명(明)의 정화(鄭和: 1371경~1435)의 말로(末路)에서

36) 앞의 각주 4의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마르크스는 '경작지에 울타리를 두르는 인클로저운동으로 인해 농토를 잃고 도시로 밀려난 농노들'이 부르주아지의 시원이라고 말한다.

37) 유대인들의 경우, 이교도였기에 농토를 가질 수도 없었고,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기에,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고리대금업이나 전당업에 종사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 이후 상업혁명과 함께 '자본'의 양이 폭증하면서 마치 물 만난 고기와 같이 그 동안 갈고 닦았던 금융기술을 이용하여 서구경제권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한다.

보듯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통적 신분사회에서 누군가의 경제력이 왕이나 귀족의 그것을 능가하게 되면 국가권력은 이를 제압함으로써 신분질서를 보전하는 법이다. 세계 어디서든 상업인이 세력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왔기에 상업인은 항상 하층계급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대규모 갈취’와 이어지는 ‘대규모 식민지 무역’을 통해 상업인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력과 무력을 소유하게 되자 과거의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말았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찍트고 그 후의 유럽 사회가 ‘상업인 세상’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앙시앵레짐의 특권층들에게 미처 손 쓸 틈을 주지 않고, 단기간에 유럽의 상업인들에게 부가 축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시선을 반대로 돌려보자.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업인을 천시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적으로 말해 ‘소유와 경쟁’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상인의 심성’이 ‘짐승의 심성’을 닮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분석하는 ‘상인’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 상인’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상인, 우리의 가족이며 친척일 수 있는 현실적 상인의 마음에는, 순전한 ‘재물에 대한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이나 ‘평예욕’ 등 ‘비상업적 심성’ 역시 섞여 있다. 짐승을 닮았다는 ‘상인’이란, 플라톤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상인 이데아(Idea)’를 말하는 것이다. ‘상행위’의 근본적 속성에 근거하여 ‘상인’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에 의거하여 낙하속도를 계산할 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과 같은 현실적 변수는 모두 소거하고 순수한 낙하거리만 변수로 사용하듯이, 동

정심이나 명예욕과 같은 ‘현실적 상인’의 다른 개성들은 모두 소거하고, ‘상행위’의 주체로서의 순전한 ‘상인’의 심성을 분석해 본 것이다. 상인은 상거래를 통해 나의 것을 ‘늘려야’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상인을 ‘이겨야’ 한다. 나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남에게 줄 경우 이는 상행행위가 아니라, 자선행위이다. 상인의 경우, 만일 그가 순전한 상인이라면 ‘자선’을 베풀더라도, 그 목적은 ‘자신이 운용하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提高)’ 또는 ‘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상인이고, 상업 활동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상인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행위에서 기본 전제 두 가지를 추출 할 수 있다. 첫째는 “내 것과 남의 것은 다르다” 또는 “나와 남은 다르다”는 ‘소유의 이분법’이고, “내 것이 늘어야 한다.”는 ‘물질적 욕망’이다.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짐승’의 심성과 다르지 않다. 이분법적 ‘인지’와 탐욕의 ‘감성’이 ‘상인 이데아’의 심성이다.

세계 어디에서든 상행위를 천시했고, 상업인을 천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유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짐승의 심성을 닮은 사람은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며 상업 활동에 성공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짐승의 심성’만 가진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룰 경우, 그 사회의 질서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이다. 짐승의 사회에서 보듯이 … . 짐승의 사회는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무기’의 위력에 의해 그 서열이 정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벗어난 자유방임적 상업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무기의 위력에 의해 그 구성원의 서열이 결정된다. 투쟁

을 통해 승자가 된 한 마리의 수사자는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지만, 투쟁에서 패배한 다른 수컷들은 모두 무리에서 밀려나듯이, 자유방임적 상업 사회에서 부는 점점 소수의 강자에게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로 변모한다. 앞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부의 집중화’를 예증하기 위해 제시했던 통계는³⁸⁾ 지금의 세계가 짐승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서 군소가게 몰락하고, 최신 설비의 대형 목욕탕이 세워지면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며, 거대 기업은 군소 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세계적 금융 재벌은 군소 국의 금융 산업을 뒤흔든다.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신자유주의 시대는 경제적 밀림이다.

2. 동물적 약육강식의 세계와 반(反)동물적 계(戒)·율(律)의 정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짐승의 세계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이다. 왜냐하면 최정상의 ‘하나’ 이외에는 모두 ‘공포’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최정상의 ‘하나’ 역시 얼마 후 노쇠하면 새로운 최강자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사회에서, 그 구성원 모두가 경제지상주의적(經濟至上主義的)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이는 ‘짐승의 세계’와 다를 게 없는 불행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38) 앞의 각주 32에 해당하는 본문.

사회가 바로 그렇다. 현재 이 혼율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를 달리게 된 것도, 그 깊은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의 세기에 따라 배우자가 교체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방임적 가치관’과 완전히 상반된 가치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있다. 바로 불교의 승가사회이다. ‘이법(理法)으로서의 윤리’인 계(戒)에 근거한 율(律)의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승가사회이다. 계와 율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동물적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계인 재가 오계(五戒)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도둑질하지 말라(不偷盜)

삿된 음행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술 마시지 말라(不飲酒)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계(三歸依戒)의 다짐을 할 경우 재가 불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에 덧붙여 위와 같은 오계의 다짐을 할 경우 보다 신실한 불자로 향상한다. 이 가운데 불음주나 불망어의 계목은 양조(釀造)문화가 없고 언어가 없는 짐승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겠지만, 다른 세 가지 계목을 짐승의 행동과 비교하면 그 지향점이 완전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들개(野犬)나 하이에나(Hyena)와 같은 들짐승의 경우, 다른 누구보다 살생의 전투력[殺]

이 뛰어나야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르고, 먹을거리를 많이 훔쳐올수록[盜] 자식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암컷과의 음행[淫]을 통해 자신의 DNA를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그러나 오계에서 보듯이 불교의 가치체계는 이러한 짐승들의 가치체계와 완전히 상반된다.

출가 구족계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다. 구족계의 궁극적 목적은 ‘계약사회로서의 승가’를 보전함으로써 불법이 계속 재생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기본정신은 오계와 마찬가지로 ‘동물적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분율』에서 제시하는 가장 가벼운 계목인 100가지 중학법(衆學法) 중에서 식사와 관련한 몇 가지 계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0) 밥을 베어 먹지 말라.
- 41) 볼을 불룩거리며 먹지 말라.
- 42) 밥을 씹는 소리를 내지 말라.
- 43) 밥을 후루룩거리며 뺏아 먹지 말라.
- 44) 혀로 밥을 훑아먹지 말라.³⁹⁾

이런 지침은 짐승이 식사하는 모습과 완전히 반대된다. 이러한 계목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위의를 갖춘 지계 청정한 출가자의 경우, 신심 깊은 불자들이 ‘그 신발에 묻은 먼지도 서로 가져가려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다.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의 모습을

보이는 존재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권력이든, 금력이든 나보다 그 세력이 월등한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출가 구도자이다. 권력자나 재력가에 대한 절복은 공포심에 의한 행위이고, 출가 구도자에 대한 예경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위이다. 굴복을 보이는 겉모습은 같지만 그 속마음은 다르다. 전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며, 그렇게 할 경우 우리에게 이득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의 말이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는 속담에 권력자에 대해 사람들이 굴복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지계 청정한 출가자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위험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지 않다. ‘지계청정하고 자비심 가득한 스님’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보이는 ‘인간의 종교적 본능’에 대한 사회생물학적(Sociobiological) 해석이다.

승가의 가치체계는 ‘권력과 금력이 지배하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완전히 상반된다.

권력과 금력의 대소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는 사회에서 그 구성원 모두가 물리적 위력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경우, 이는 짐승의 사회와 다를 게 없다. 최정상의 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금력과 권력에서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위력에 눌려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반(反)동물적 가치체계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는 승가사회의 경우 그 구성원 중에서 ‘가장 자비롭고, 가장 선량하며, 가장 지혜로운 수행자’가 최정상에 오르기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39) 『四分比丘戒本』(『大正藏』22, 1021a).

물질적, 경제적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정신을 물들이는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인해 불행감은 더욱 커질 뿐이다.

III. 진정한 ‘역사의 종언’을 위한 불교적 모색

1. 신자유주의의 그늘을 밝히는 새로운 등불 – NGO와 인터넷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우리는 지나간 세계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작금에 세계적으로 강요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전쟁 이후 유럽의 정치, 경제사의 전개과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폴레옹전쟁(1792~1815) 이후 자유방임적 경제운용 → 초기 산업자본주의[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1848년), 파리코뮌(1871)] → 공황(1873년) → 독점자본주의 → 제국주의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1917년) → 세계대공황(1929년) →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 자본주의의 황금기(1945~1973년) →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 → ?

여기서 보듯이 자유방임적 경제운용이 극으로 달릴 경우 두 가지 사태가 발생한다. ‘혁명’ 혹은 ‘공황’이다. 부의 집중이 극심해지면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난다. 혁명이다.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일반대중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산업이 마비되고, 대출금의 회수 역시 어려워져 금융기관이 도산한다. 공황이다. 대중의 결집력이 약할 때는 공황이 발생하고, 대중의 결집력이 강할 때는 혁명이 일어난다. 공황과 혁명 이후 때론 전쟁이 발발하기도 한다.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현대판 ‘자유방임주의’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사회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산권 붕괴와 때를 맞추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NGO가 급증한다.⁴⁰⁾ 인터넷이 확산된다. NGO와 인터넷이 만나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세계 각국의 NGO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에 대해 감시하고 저항한다.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을 ‘중앙집권적 좌파’라고 명명한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감시하고 그에 저항하는 세계 각국의 NGO는 ‘지방분권적 좌파’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권의 붕괴로 한쪽 날개를 잃었던 인류는 새롭게 돋아나고 있는 NGO의 좌익(左翼)으로 이제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세상이 투명해진다. 일방적 정보제공매체인 방송이나 신문과 달리 인터넷에서는 쌍방소통이 가능하기에 어두운 그늘에 살던 민초들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전해지며, 맨주먹을 치켜 든 NGO의 시

40) 김성철, 「불교NGO 활동에 대한 이론적 모색」, 『불교문화연구』 제8집(경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7), 261-262쪽 참조.

위를 통해 정책에 반영된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촛불시위 역시, 새롭게 나타난 ‘맨주먹과 인터넷’의 위력을 예증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화엄(華嚴)의 인다라망(因陀羅網: Indra-net)과 비교한다.⁴¹⁾ 표면이 거울 같이 반짝이는 구슬들이 그물코마다 달려있는 제석천의 입체그물에서, 하나의 구슬 표면에는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반영된다. 한 구슬에 점을 찍으면 다른 모든 구슬에도 그 점이 나타난다.⁴²⁾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블로그에 올린 정보는 접속한 모든 이의 모니터에 나타난다. 컴퓨터 앞에 앉은 이곳의 나는 컴퓨터 앞에 앉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교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곳에 갈 [= 접속할] 수 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다.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개개인을 비로자나부처님의 텔구명 앞에 앉혀 놓았다.⁴³⁾

정보통신기기로 인해 세상은 점점 투명해진다. 불의(不義)가 횡횡하는 후미진 그늘이 없어진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서든 불의가 드러나면 곳곳에서 NGO가 일어선

다. 맨주먹으로 ….

2. 중도불성(中道佛性)의 감성과 천수천안(千手千眼)의 실천

동아시아불교계에 『대반열반경』이 번역, 유포되면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는 경문의 ‘불성’의 정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길장(吉藏: 549~623)의 『대승현론』에서는 당시의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불성의 정체로 중생(衆生), 육법(六法)⁴⁴⁾, 심(心), 명전불후(冥傳不朽),⁴⁵⁾ 피고구락(避苦求樂),⁴⁶⁾ 진신(眞神),⁴⁷⁾ 아리야식자성청정심(阿梨耶識自性清淨心), 당과(當果),⁴⁸⁾ 득불자리(得佛之理),⁴⁹⁾ 진제(眞諦), 제일의공(第一義空)의 열한 가지를 소개한다. 그러나 삼론학에서는 이 모두를 비판한 후 불성은 중도(中道)라고 결론을 내린다.⁵⁰⁾ 중도란 ‘탈이분법을 향한 무한 변증법’이다. 유(有)와 무(無)의 ‘이분법’에 대해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중도’를 제시하고, 이런 ‘이분법’과 ‘중도’를 다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 ‘비이 비불이(非二 非不二)’⁵¹⁾의 ‘중도’를 새롭게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와 ‘무’의 자리에는 각각 ‘삶[生]’과 ‘죽

41) 일례로 다음과 같은 시를 들 수 있다: The IndraNet, Hyper Poetry by Andrew Stone, “The InterNet is just a hollow shadow of the IndraNet / Each being is a pearl in the infinite web / There is no time or space separating any of us / Go ahead, and try it! Reach in and touch someone / The omnipresent IndraNet folds all dimensions into one”(<http://www.stone.com/Indranet.html>).

42) “此帝網皆以寶成 以寶明徹遞相影現涉入重重 於一珠中同時頓現 隨一卽爾 竟無去來也 今且向西南邊 取一顆珠驗之 卽此一珠能頓現一切珠影 … 點西南邊一珠者 一珠著時卽十方中皆有墨點 既十方一切珠上皆有墨點 故知十方一切珠卽是一珠也”: 杜順, 『華嚴五教止觀』(『大正藏』45, 513b).

43) 김성철, 「화엄사상에 대한 현대적 이해」, 『불교문화연구』 제4집(경주: 동국대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3) 참조.

44) 五陰과 人

45) 그윽하게 이어지며 쇠락하지 않는 마음.

46) 고를 피하고 낙을 추구하는 마음.

47) 참된 神我.

48) 앞으로 언젠가 부처의 과보에 오를 것임.

49) 누구든 부처가 된다는 이치.

50) “無常無斷名爲中道 只以此爲中道佛性也”: 『大乘玄論』(『大正藏』45, 37b); “今大乘明義 正以中道爲正因體 故正因佛性是正法:” 慧均, 『大乘四論玄義記』(『卽新撰續藏經』46, 603b).

51) 非二: 非-有無, 非不二: 非-非有非無.

음[死]’이 대입될 수도 있고, ‘나[自]’와 ‘남[他]’이 대입될 수도 있고, 깊[長]과 짧음[短]이 대입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삶과 죽음이 실재한다는 이분법적 생각에 대해서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중도의 조망을 제시하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조망을 어떤 상태로 집착하여, ‘삶도 있고 죽음도 있는 현실[生死의二]’과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상[不生不死의 不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착각에 빠진 자에게는 다시 ‘삶도 있고 죽음도 있는 현실’도 없지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상(理想)’ 역시 없다[非二 非不二]는 제2의 중도적 조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무소득(無所得)을 향한 영원한 추구’가 삼론학에서 발견한 중도(中道)의 진정한 의미이다. 중도를 향한 추동이 바로 불성인 것이다.

이분법에서 벗어난 이러한 인지적(認知的) 중도의 지혜는 우리의 ‘감성’에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자비심이 짹트게 한다.⁵²⁾ 불교수행자의 인지(認知)의 변화가 그의 정서(情緒)를 변화시킨다.⁵³⁾ 선가(禪家)의 수행목표인 견성(見性)은 견불성(見佛性)을 의미한다.⁵⁴⁾ 견성한 수행자, 아니 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인 불성의 편린이라 자각한 사람에게는 ‘중도적 감성’인 자타불이, 동체대비의 자비심이 짹른다. 이는 비단 불교도만 갖춘 감성이 아니다.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 역시 중도불성의 감성이다.

52) “若智 自他不二 生死涅槃平等 開 佛道因緣也”: 吉藏, 『大品義疏』(『新撰續藏經』 24, 288a).

53) 우리의 정서는 인지에 종속적이다: “我執必依法執而起”, 護法 外, 『成唯識論』(『大正藏』 31, 24b).

54) “西天國王 問波羅提尊者曰 我欲作佛 不知何者是佛 尊者曰 見性是佛 王曰 師見性否 尊者曰 我見佛性”, 宗杲, 『大慧普覺禪師語錄』(『大正藏』 47, 829c).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와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1967) 그리고 ‘청년 마르크스’를 움직이게 한 추동력은 중도불성의 감성이었을 것이다. 중도불성은 ‘제도권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종교심의 원천이다.

중도불성의 감성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도 작동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법이 심해질 때 이를 타파하기 위해 중도불성의 감성이 움직인다. 이분법이란 국가 내, 국가 간에 빈곤[貧]과 부유[富]의 ‘차별의 이분법(二分法)’일 수도 있고, 하나의 민족이 남[南]과 북[北]으로 갈린 ‘분단의 이분법’일 수도 있다. 중도불성을 추구해 온 불교도는, 만일 그가 진정으로 불교적인 신행활동을 했다면, 이러한 이분법에 대해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보살행이 시작된다.

중도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내적으로는 자비심이 가득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방편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⁵⁵⁾ 내적인 자비심은 중도불성의 자각을 통해 갖추어진다. 이를 위한 수행은 이변(二邊)을 떠난 중도의 인지(認知)를 지향하는 간화선 수행일 수도 있고, 무상(無常)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무아(無我)를 자각함으로써 자타불이의 중도를 체득하는 위빠사나 수행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중도불성의 감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우리는 그 ‘롤 모델(Role model)’을 천수천안(千

55) “菩薩大事者 所謂不捨一切衆生 然度衆生必須二事 一者內有慈悲心 二者外有方便救濟”, 吉藏, 『金剛般若疏』(『大正藏』 33, 102c).

手千眼)의 관세음보살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천개의 눈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찾아내어 천개의 손으로 그 고통을 보듬는 관세음보살… 약자를 보살피고 불의에 항거하는 NGO의 천수(千手)가 인터넷의 천안(千眼)과 만남으로써 우리사회는 밝아질 수 있다. ‘천수천안 NGO’의 감시와 보호와 항거는, ‘신자유주의의 밀림’을 지키는 이 시대의 희망이다.

3. 금력과 권력이 ‘골방의 족보’처럼 취급되는 사회를 위하여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89년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산실’인 시카고 대학에서 개최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제 ‘통치이념의 역사’는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하였다. 통치이념의 마지막 승리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후쿠야마의 강연에 떼를 맞추듯이 동구의 공산권이 모두 몰락하면서 후쿠야마는 세계 정치사회학계의 스타가 되었다.⁵⁶⁾ 그러나 공산권 붕괴 이후 ‘라이온 킹’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한 미국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석유와 이교도의 땅 중동지방을 공략한다.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후쿠야마의 희망과 달리 역사는 아직 종언을 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던 후쿠야마는 2006년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서 신보수주의를 ‘레닌주의(Leninism)’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면서 네오콘들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네오콘들은] 힘과 의지를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역사가 그대로 밀어붙여질 수 있다고 믿었다. 레닌주의는 볼셰비키 판 비극이었는데 미국에 의해 그러한 레닌주의가 실행되면서 완전히 희극이 되고 말았다. 신보수주의는, 그것을 정치적 상징으로 보든 아니면 어떤 사상으로 보든, 더 이상 내가 지지할 수 없는 요상한 것으로 진화해버렸다.⁵⁷⁾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강의했던 1989년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걸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지속되었다면 후쿠야마의 말대로 통치이념의 역사는 종말을 고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양의 탈’을 벗어던진다. 네오콘(Neo-conservative: 신보수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보듯이 국제질서를 군사, 경제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달라진 것을 읽지 못한 네오콘들의 오판이었다. 테러가 끊이지 않고 미군의 희생이 늘어나며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침공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는다. 화엄의 인드라망에 비교하듯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알려지는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물리적, 군사적 힘이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네오콘들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1989년 공산권 붕괴 직전에 후쿠야마가 “통치이념의 역사는 이제

56) 김성철, 「불교NGO 활동에 대한 이론적 모색」, 『불교문화연구』 제8집(경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7), 290-291쪽 참조.

57) Wikipedia, Francis Fukuyama 항목.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했지만, 인류역사에서 ‘통치이념 간에 갈등이 일어났던 시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이후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불과 140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뿐이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 호칭만 달랐지 ‘왕 → 귀족 → 평민 → 노예’로 이어지는 신분질서가 자연발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이념이 탄생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금력(金力)에 의한 위계질서가 세습됨으로써 새로운 신분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왕, 귀족, 평민, 노예라는 ‘혈통적 신분’은 없어졌지만, ‘왕처럼 사는 재벌’, ‘귀족처럼 사는 부유층’, ‘평민처럼 사는 중산층’, ‘노예처럼 사는 빈곤층’으로 ‘경제적 신분’이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 보는 듯한 재벌들의 족내 혼 풍습이 생긴 지 이미 오래되었다.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격려의 속담이 “젊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평생을 고생하고 산다.”는 자조적(自嘲的) 속담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이미 실험이 끝난 공산주의사회로 회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상업인과 금융인과 같은 경제인들의 역할이다. 그 파이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이다. 그리고 경제인들의 독주와 정부의 실정을 감시하고 그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바로 ‘천수천안 NGO’의 몫이다.

진정으로 통치이념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아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문명과 결합한 NGO’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NGO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매운동’이다. 마치 국제연합과 같은 ‘세계 NGO 연합’이 결성되고, 인터넷을 통해 공동행동을 취하게 되면 신자유주의시대의 공룡인 다국적기업도 조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계와 율에 스며있는 반(反)-동물적인 가치체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혜원(慧遠: 334~416)의 『사문왕자불경론(沙門王者不敬論)』에서 보듯이, 승가의 가치체계에서 세속적 권력은 무의미하다. 승가의 가치체계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재물 역시 무의미하다. 재물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과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가적 삶이 예증하듯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누구나 권리이나 금력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왕후 장상(王侯將相)의 권리가 부럽지 않을 수 있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승가적 가치체계 속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하며 권리이나 금력을 가진 자가 그 누구의 권리도 함부로 유린할 수 없어야 한다. ‘사회보장’과 함께 ‘엄정한 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천개의 눈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찾아내어 천개의 손으로 그 고통을 보듬는 천수천안 NG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불교적 가치체계에 바탕하여 활동하는 ‘천수천안 NGO’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절대빈곤이 사라지고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질 때 과도한 재산이나 권력은 ‘꼴방의 족보’처럼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힘’보다 ‘콘텐츠’에 가치를 둔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 누구에게나 언젠가 죽음이 닥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사전

- 『브리태니커』(한국브리태니커, 2002), 비스마르크 항목.

-불교원전

- 『四分比丘戒本』(『大正藏』22)
- 杜順, 『華嚴五教止觀』(『大正藏』45)
- 吉藏, 『大乘玄論』(『大正藏』45)
- 吉藏, 『大品義疏』(『新撰續藏經』24)
- 吉藏, 『金剛般若疏』(『大正藏』33)
- 宗杲, 『大慧普覺禪師語錄』(『大正藏』47)
- 護法 外, 『成唯識論』(『大正藏』31)
- 慧均, 『大乘四論玄義記』(『弘新撰續藏經』46)

-단행본

- Ward Churchill, *Indians Are We? Culture and Genocide in Native North America* (Monroe, ME: Common Courage Press, 1994)
- Stiglitz, J.,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2002)
- 송병건, 『세계화시대에 돌아보는 세계경제사』(서울: 도서출판해남, 2005)
- 안병영 ·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서울: 나남출판, 2000)
- 장하준 저, 형성백 역, 『사다리 겪어차기』(서울: 부키, 2004)
- 조성민, 『민법총칙』(서울: 두성사, 2003[초판 1999])

- 조성종, 『법학개론』(서울: 학연사, 2006)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G. 르페르베, 민석홍 옮김, 『프랑스혁명』(서울: 을유문화사, 1995)
- 마르크스 · 엔겔스, 『공산당선언』(1848)
- N. 브리스코른, 김일수 옮김, 『법철학』(서울: 서광사, 1996)
- 크리스 하먼, 이수현 옮김, 『세계를 뒤흔든 1968』(서울: 책갈피, 2004)

-논문

- Karl Marx, "Die Deutsch Ideologie"(1945/1946)
- 김성철, 「화엄사상에 대한 현대적 이해」, 『불교문화연구』 제4집 (경주: 동국대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3)
- 김성철, 「불교NGO 활동에 대한 이론적 모색」, 『불교문화연구』 제8집 (경주: 동국대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7)

-웹사이트

- Wikipedia[www.wikipedia.org]의 다음 항목: Adam Smith, Chicago school, Chicago school of economics, Francis Fukuyama, FTA, IMF, Keynesian economics, Laissez-faire, Liberalism, Mercantilism, Neoliberalism, Reaganomics, Thatcherism, Washington Consensus, World Bank Group
- <http://www.cid.harvard.edu/cidtrade/issues/washington.html>
- <http://www.stone.com/Indranet.html>

Neo-liberalism and the Role of Buddhists

Kim, Sung-chul
Dongguk University

The origin of neo-liberalism is traced back to the age of Adam Smith. Adam Smith insisted that the free market system increases the wealth of a nation. Several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the age of aggressive capitalism began. The rich seemed to get richer and the poor poorer. After 1848, the year in which Karl Marx and Engels published *Communist Manifesto*, the struggles between Capitalists and Communists continued. Since then Capitalism has pretended to reform itself. But with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the economic systems of many nations began to revive the ideology of aggressive capitalism. The policy of *Laissez-faire* seems to have been revived.

The spiritual attitude of merchants resembles that of animals. They make money based on the spirit of dualism

and greed. But Buddhists' spiritual attitudes are opposed to those of merchants or animals. For this reason, Buddhists play the role of social activists in this age of the neo-liberal jungle.

Key Word

Neoliberalism, Karl Marx, Middle path, Buddha nature, NGO, Capitalism, Communism

발우공양법의 수행 및 생태적 고찰

남궁선
동국대학교

I. 머릿말

II. 발우공양

1. 발우공양의 유래
2. 발우공양의 변천

III. 소심경

1. 공양 전 의식
2. 공양 중 의식
3. 공양 후 의식

IV. 발우공양의 의의

V. 맷음말